



몽골 200호점 달성

CU, '글로벌 CVS 브랜드' 도약 향해 질주 몽골·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공격적 영업망 확장

국내 편의점 업계 1위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1990년 1호점을 연 이래 30여 년간 대한민국 편의점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CU는 'CVS(convenience store·편의점) for U'라는 뜻으로, 다양한 고객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성향에 최적화된 맞춤형 생활·문화 공간을 지향한다.

CU는 편의점 브랜드와 시스템을 수출하며 세계 무대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BGF리테일은 2018년 4월 몽골 기업인 센트럴 익스프레스(Central Express)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업계 최초로 몽골 시장에 진출했다.

상품 기획(MD), 점포 개발, 정보기술(IT), 영업 등 각 분야 정예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현지에서 파견해 편의점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했다.

현재 울란바토르에 1호점인 CU샹그리아점을 비롯한 200여 곳을 운영하며 글로벌 브랜드들을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랐다.

현지 반응은 폭발적이다. 점포당 하루 평균 방문객이 1천 명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한국보다 3.2배, 일본보다 1.3배 더 많다. 특히 몽골 젊은 층 호응이 높다.

CU는 한국의 중소기업 상품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몽골 CU에서 판매하는 전체 상품의 약 30%를 '헤이루'(HEYROO)라는 PB(private brand·유통업체 자사 브랜드) 상품으로 공급하는데 국내 중소기업 40여 곳이 브랜드 파트너로 참여 중이다.

CU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영역을 확대 중이다. BGF리테일은 말레이시아 기업인 마이뉴스 홀딩스 자회사인 마이씨유리테일(MYCU Retail)과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4월 말레이시아 CU를 열었다.

CU는 말레이시아에서 K-편의점의 영향력을 드높였다. 쿠알라룸푸르에 1호점을 오픈하자마자 점포 앞에 100m가 넘는 긴 대기 줄이 늘어설 정도였다.

현지에서는 한국 상품이 전체 매출의 70%를 넘는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끈다. 특히 떡볶이, 닭강정 등 한국식 즉석조리식품 선호도가 높다.

CU는 현지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 PB상품 등 한국 상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주 비빔 삼각김밥, 김치·참치 김밥, 소불고기 도시락, 인기가요 샌드위치 등 특색 있는 한국 메뉴와 트렌드 상품으로 공략 중이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현재 점포 수는 90여 곳으로 늘었다.

또 CU는 한국 편의점 모델과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BGF 글로벌 IT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적용 중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국내 시장 사업 내실을 강화하고, 성장성이 큰 신흥국가 등 해외 시장에 대한민국 편의점의 우수한 시스템을 선보여 글로벌 CVS 기업으로서 더 큰 도약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말레이시아서 인기몰이 중인 CU